

“美 우량 기술·헬스케어株 주목… ‘ESG투자’도 지속 관심”

AB운용 2022 주식·채권 전망

“美 증시 상승세 이어질 것
수익성 없는 기술주 ‘유의’”

“상반기 美 하일드 채권 주목
하반기엔 이머징 채권을”

얼라이언스벤처자산운용(AB자산운용)이 2022년 상반기에도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견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 기술주, 헬스케어주 등 우량주와 하이일드 채권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AB자산운용은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2년 글로벌 주식 및 채권 시장 전망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AB자산운용은 총 26개 국가에서 879조원(2021년 9월 말 기준)의 자산을 운용 중이다.

◆“금리 상승 직전·직후…주식 수익 확률 높아”

데이비드 워 AB자산운용 주식부문 선임투자전략가는 올해도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년간 강세장이 이어져 올해는 ‘꺾일 수밖에 없다’는 회의론에 대해 “미국 증시에 편입된 견조한 실적의 회사들이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1930년 이후 미국 증시의 실적을 보면 강세장은 평균 5년간 지속됐으며, 평균 수익률은 250%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면서 주식 수익도 안정화 흐름을 따를 것이라 설명했다.

데이비드 워 전략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범위가 1~3%대로 유지될 경우 오히려 미국 주식이 가장 높은 실적을 제공한 ‘스위트스팟(Sweet Spot)’이었다”며 “또 금리 상승의 직전과 직후 전체 주식의 총수익이 플러스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실적이 탄탄한 ▲기술주 ▲헬스케어주 등 우량주에 관심을 가지라고 밝혔다. 또 미래 가치만 존재하고, 수익성이 없는 기술주에 대한 투자는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 주식의 경우 ‘자사주 매입’ 비중이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AB자산운용은 올해 미국 기업이 8720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의 자사주를 매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美 하이일드 기업, 펀더멘털 ↑

유재홍 AB자산운용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적극적인 글로벌 분산 투자를 기반으로 상반기에는 미국 하이일드 채권, 하반기에는 이머징 채권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미국 국채는 -2.6%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하이일드 채권은 6.0%의 플러스 수익률을 달성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미국 하이일드 채권의 부도율은 0.2%(과거 평균 3~4% 수준)로 사실상 부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며 “또 등급이 올라가는 기업이 등급이 내려가는 기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는 미국 하이일드 기업 내의 펀더멘털이 지난해 현저하게 좋아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수익 채권에 투자하시되 하이일드 채권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만기를 줄인다는든지, C등급 채권을 빼고 BB등급이나 B등급 위주로 구성하는 등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선택이 하이일드의 위험 조정 수익률이 (하이일드 채권보다) 더 높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이머징 채권, 특히 현지 통화로 표시된 이머징 채권에 관심을 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202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이



18일 이창현 AB자산운용 대표가 ‘2022년 글로벌 주식 및 채권 시장 전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미경 기자

머징 채권들의 금리 인상이 먼저 이뤄져 성장률 차이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라고 했다.

유 매니저는 “주식시장이 먼저 ESG에 대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해외 채권시장 내에서는 ESG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특성·환경 고려 표준감사시간 개정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품질을 높이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개정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표준감사시간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의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감사시간의 탄력성을 높인 것이다.

개정된 표준감사시간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회사 개별특성 고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 삭제 ▲상한·하한 규정 삭제 ▲가감요인 통합 및 간소화 ▲2022년에 2021년과 동일한 단계적 적용률을 적용 ▲법률, 회계·감사기준 변경시 표준감사시간 산정 근거 마련 등이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번 개정을 위해 실시한 한국회계학회 연구결과와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기업의 감사품질이 전체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나타난 만큼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보이용자와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미경 기자

디즈니가 인정한 디자인 역량 바탕으로 모바일 플랫폼 확장

IPO 간담회

하인크코리아

IBKS제15호스팩합병 코스닥 상장
올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출시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기업 하인크코리아가 오는 20일 IBKS제15호스팩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

하인크코리아는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 후 계획과 비전 등에 대해 밝혔다.

지난 2005년 설립된 하인크코리아는 주력 사업이었던 모바일 액세서리 제조·판매에서 최근 모바일 플랫폼 개발까지 사업을 확장시켰다. 삼성전자 모



18일 김상필 하인크코리아 대표이사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하인크코리아

바일 액세서리 파트너십 프로그램(SM APP) 파트너사로 스마트폰 및 무선 이어폰 케이스와 같은 각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디즈니, 마블, 커피빈, 빙그레, 우영미 등 국내외 20여개 브랜드와 IT응용 제품 콜라보레이션을 진행

했다. 지난 2020년에는 월트디즈니로부터 디자인 역량을 인정 받아 ‘디즈니 크리에이티브 오브 더 이어(Disney Creative of the Year)’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디자인 역량을 바탕으로 개인이 모바일 액세서리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콘텐츠 플랫폼 ‘롤리바일(Loliblib)’을 출시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자체 브랜드 ‘내마메(NEMAME)’를 만들어 국내 온라인과 해외 아마존 진출에 성공했다. 2022년에는 QR 및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을 탑재시킨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바로다(Baroda)’를 출시할 예정이다.

김상필 하인크코리아대표이사는 “하

인크코리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4.4%를 달성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장이 침체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사업모델을 발굴하며 지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출시 등 신사업을 통한 사업 확장으로 모바일 플랫폼 시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인크코리아는 이번 스펙 합병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연구개발, 시설 및 운영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30일 합병기일을 거쳐 오는 20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한국투자증권

스텝다운형 ELS 50억 한도 모집

한국투자증권이 오는 25일까지 온라인 전용 스텝다운형 ‘TRUE ELS 14685회’를 총 5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홍콩H(HSCEI),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유로스톡스(EURO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 상품은 스텝다운형 구조로 만기는 3년이다. 6개월마다 기초자산을 관측해 상환 여부를 판단하며 최초기준가의 90%(6·12개월), 85%(18·24개월), 80%(30개월), 70%(만기) 이상일 경우 연 7.50%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만기까지 상환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 시 총 22.50%(연 7.50%)의 수익을 제공한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시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의 70% 미만이라면 원금의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청약이 가능하며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숙려기간을 갖게 된다. 이후 24일부터 25일 오전 10시까지 영업점 및 ‘한국투자’ 앱 등을 통해 청약을 확정하면 된다.

/박미경 기자

예탁원, ‘증권형 토큰’ 법제화 대비 공동연구 진행

혁신기술 활용방안 다각적 모색
관련개념 검증 연내 조사 마무리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형 토큰(STO) 법제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연구 수행을 시작했다.

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 후선업무에 대한 혁신기술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증권형 토큰의 법제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동력을 모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분산장부 등 혁신기술 기반의 신규 금융자산의 등장 및 관련 인프라 확산에 따른 선제적·능동적 대응을 위해서다.

지난 2018년부터 예탁원은 블록체인의 기반 전자투표 시범운영을 완료했으며, 채권장외결제업무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컨설팅을 마쳤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범운영을 통해 주주의 전자투표 내역을 복수의 기관이 분산보관함으로써 투명성과 위·변조방지 효과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PoC 컨설팅을 통해서도 예탁원 기간업무에 적용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가능 모델 및 그 모델의 기술적 적용 가능성 등을 확인했다.

예탁원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증권형 토큰 관련 개념 검증에 돌입했으며, 올해 안에 관련 제도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업무를 대상으로 시장의 발행총량 관리 및 유통 기능을 지원하는 분산장부 기반 발행유통 플랫폼에 대한 개념설계와 검증작업 수행했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유입 방지는 물론 다양한 결제주기를 지원하는 투자자 보호 중심의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검증했다.

관련 제도 조사는 지난해 10월 분산장부 기반의 증권형 토큰을 수용하는 독일 전자증권법의 검토 및 번역을

통해 출간을 마쳤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제도적 수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법제 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수행 중이다.

예탁원은 향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혁신기술의 업무 적용 검토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법제화 가능성은 물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증권형 토큰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과 같은 금융선진국의 관련 사용 사례(Use-Case)에 주목해 관련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현황을 검토 중이다.

한국예탁결제원 협찬 /박미경 기자

